

#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Time and Time Pres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s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장연주\*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현자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Youn-Ju Jang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i-Young Lee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yuncha Choe

## 〈목 차〉

- |                |            |
|----------------|------------|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 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time and time pressure based on time availability perspective and gender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use of leisure time and the level of time pressure according to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s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time and time pressur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s. The sample for the study was drawn from the Time Use Survey data collected

\* 주저자, 교신저자: 장연주(nicence2000@hanmail.net)

by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9. Two cases were gathered from each of the samples who are married, aged over 20, presently working and raising preschoolers, which makes 3,150 cases in the tota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s of leisure tim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gender role attitude are not significant, but gender differences are significant. Men's leisure time is more than women's leisure time. Secondly, people with progressive gender role attitudes have higher time pressure than people with conservative gender role attitudes. By the gender groups, women's time pressure is higher than men's time pressure. Thirdly, men's time pressure is decreasing as leisure time increases, but effect of leisure time on women's time pressure is not significant. Women with progressive gender role attitudes have higher time pressure than women with conservative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other hand, influence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en's time pressure is not significant. Fourthly, only male group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time and time pressure. In other words, time pressure of men with conservative gender role attitudes is decreasing more sharply than men with progressive gender role attitudes as leisure time increases. In contrast, increased leisure time does not relieve women's time pressure even though they have conservative gender role attitudes. These results show that men's time pressure can be interpreted in the time availability perspective, while women's time pressure can be described in gender perspective.

**Key Words** : 여가시간(leisure time), 시간압박감(time pressure),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s), 성차(gender differences),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시간에 대한 경험이나 주관적인 인식이 심리적 복지나 건강 등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의(Hill, 1988; Robinson & Godbey, 1997)가 진행되면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시간압박감(Time Pressure)’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간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가 축적되면서 시간사용관련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개인의 생활시간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개별적인 시간사용 활동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양적 시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시간배분유형에 따른 시간부족 차이를 탐색한 연구(차승은, 2008), 성별에 따른 시간압박관련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차승은, 2010),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과의 관련성을 실증한 연구(차승은, 2011a),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감과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차승은, 2011b) 등 시간부족감을 중심으로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단계이다.

시간사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가용한 시간의 양이나 구성에 따

라 시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달라진다는 가용시간론(Time Availability Perspective)적 접근방식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시간 압박감 등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일하는 시간이나 여가시간 등 특정 생활시간에 배분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에는 동일한 생활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젠더론적 입장(Gender Perspective)에 의하면, 가용한 시간의 양이나 구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남녀가 경험하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두 가지 입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시간 활용 중 여가시간에 초점을 두고 주관적 시간 경험인 시간압박감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젠더론적 관점에서 남녀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시간사용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가용시간론적 입장과 젠더론적 입장을 모두 포괄하여 살펴보고, 두 관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주관적 시간경험에 대한 가용시간론적 차원과 젠더론적 차원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시간사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논의는 가용시간론적 접근방법과 젠더론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용시간론적 관점은 모든 사람에게서는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지고 각 임무들

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시간들 간에 제로-섬(zero-sum)법칙이 적용되며, 각 시간들은 지속적인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손문금, 2004). 또한, 이러한 관점은 직업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혹은 가족생활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사람들의 시간배분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동시간에 보내는 시간이 많고 여가시간이나 자유시간 등 개인을 위한 시간이 적을 경우 시간부족인식을 유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젠더차이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남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 경험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시간배분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나 개인이 해당되는 역할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Ferree, 1990; Thomson & Walker, 1989).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가 동일한 시간을 동일한 역할수행에 사용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경험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생활에서 유급노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정생활영역의 역할도 전담해야 하는 이교대 노동(Second Shift)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Hochschild, 1989). 따라서, 젠더론의 시각은 남녀의 가용한 시간의 양이나 시간사용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성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인의 주관적 시간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간부족 인식에 관한 연구들도 이러한 두 가지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가용시간론적 관점에서 여가시간과 시간부족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시간을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일하

는 시간 대비 여가시간의 비중을 기준으로 여가시간과 시간부족인식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Becker(1965)는 일하는 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이 많으면 시간부족을 덜 지각하고, 노동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으면 시간이 부족하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Bianchi, Robinson & Milkie(2006)와 Schneider & Waite(2005)는 현대인들은 직업영역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매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가시간의 감소는 시간부족감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여가시간이 시간부족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국내 연구에서도 시간부족인식과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반해 여가시간은 시간부족인식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손문금, 2004),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감이 높아지면 여가시간이 감소한다는 실증연구결과(차승은, 2011b)가 보고되었다.

한편, 여가시간의 증가가 시간적 여유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논의도 있다. 실제로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여가는 다양한 활동으로 분화되면서, 여가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한신갑·박근영(2007)은 Schor(1992)가 제시한 “여가의 소비”의 개념에 착안하여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은 여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들이 제한되거나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가를 증가시키는 것은 시간압박감을 강화시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더 바빠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젠더론적 입장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의미부여 정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Daly(1996)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보내는 시간

이 부족한 경우 시간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시간압박감은 여가시간의 총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따른 개인의 주관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녀를 돌보고,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남성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 의식으로 인해 여성의 시간부족감은 강화된다(Bianchi et al., 2006). 또한, 남성은 일과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 비해 여성은 일과 자녀양육 및 집안일이 시간부족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문금, 2004). 이러한 결과들은 성역할 인식 및 태도에 따라 시간부족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젠더론적 관점에서 시간부족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고착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경우 시간사용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부족감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부족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가시간과 같은 객관적 시간사용에 따라 시간부족감에 차이가 난다는 입장과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에 따라 시간압박감이 달라진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여가시간의 사용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에 따라라도 시간압박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 관점은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 2. 시간압박감의 영향요인

본 연구는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를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여가시간과 성역할 태도 이외에 시간 압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설명변수와 시간압박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관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표 1>참고).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특성(성별, 교육수준, 소득, 가치관)이나 노동상황(취업유무, 직종, 근무형태, 임금노동시간, 돌봄시간, 가사노동시간, 배우자와 공동노동시간) 및 가족상황(배우자 유무, 배우자 취업여부, 자녀유무, 자녀연령)에 따라 시간에 대한 압박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최근에는 성별에 따라 시간압박인식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 부부의 공동노동시간, 일/여가시간배분유형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시간압박감의 영향요인은 더욱 세분화되어 분석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영역별 시간사용관련 요인, 성역할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및 가족생활주기, 결혼상태, 학력, 소득, 자녀 등이 있다.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압박감을 더 느낀다는 해외 연구결과(Bianchi et al, 2006)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압박감을 더 느낀다는 국내 연구결과(차승은, 2010)가 상존하고 있었다. 연령 및 가족생활주기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역할, 직업역할, 가사노동, 돌봄노동, 여가, 기타사회활동 등이 모두 밀도 높게 집중되어 있는 중년기가 다른 생애단계에 비해 속도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binson, 1990), 취업남성은 20대에 가장 바쁘다고 지각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강도가 완화되는 데 비해, 취업여성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서

가장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승은, 2010). 또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도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더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Matingly & Sayer, 2006; Nomaguchi et al., 2005; 차승은, 2010).

활동 영역별 시간사용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초기 연구들은 대체로 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따른 시간부족감을 살펴보고 있었다. Becker(1965)는 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이 많으면 시간부족감을 덜 느끼지만, 반대로 노동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으면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성별에 따라 활동 영역별 시간사용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힌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유급노동시간이나 교제 및 사회활동시간 등 직업활동과 관련된 시간이 시간압박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은 유급노동시간, 이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등이 시간부족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시간압박감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손문금, 2004; 차승은, 2010).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기혼취업여성의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최혜지(2007)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성역할에 반대하는 여성의 경우 실제적인 임금노동시간이 많을 때 임금노동시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성역할에 찬성하는 여성의 경우 실제적인 임금노동시간의 양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영역의 활동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따라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표 1〉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시간압박감의 영향요인

구분	영향요인	관계	연구	비고	
사 회 인 구 학 적 요 인	성별	여성 > 남성	손문금(2004) Robinson & Godbey(1997) Bianchi et al.(2006)		
		남성 > 여성	차승은(2010)		
	연령 가족생활주기 생애주기 가족상황	중년기		Robinson(1990)	부모역할, 직업역할, 가사노동, 돌봄노동, 여가, 기타사회활동 등이 모두 밀도 높게 집중되어 있는 중년기가 다른 생애단계에 비해 속도감을 가장 높게 지각함.
				차승은(2010)	취업남성은 20대에 가장 바쁘다고 지각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강도가 완화되는 데 비해, 취업여성은 30대 중반에서 40대가 가장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30-40대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손문금(2004)	30대, 40대,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시간압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준	+	손문금(2004) 차승은(2010) Matingly & Sayer(2006) Nomaguchi et al. (2005) Robinson & Godbey(1997)		
	소득수준	+	차승은(2010) Matingly & Sayer (2006) Nomaguchi et al. (2005) Robinson & Godbey (1997)		
	노동상황 (직업·근무형태·취업여부)	전문직·관리직, 전일제 유급노동자		Daly(1996)	전문직·관리직, 전일제 유급노동자의 경우 시간압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직> 전문직		손문금(2004) Becker(1965) Matingly & Sayer(2006)	
	시 간 사 용 관 련 요 인	노동시간 (유급/무급/ 가사노동시간 )	+	손문금(2004) 차승은(2010)	
여가시간		-	손문금(2004) Becker(1965)		
자녀돌봄시간		+	Bianchi et al.(2006)		
이동시간			차승은(2010), Daly(1996)		
일/여가시간 배분유형		일중심형 >일여가형 >가족중심형 >여가중심형		차승은(2008)	
성 역 할 태 도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가치관		최혜지(2007)	전통적 성역할에 반대하는 여성의 경우 실제적인 임금노동시간이 많을 때 임금노동시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통적 성역할에 찬성하는 여성의 경우 실제적인 임금노동시간의 양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및 직장생활에 대한 책임의식		Bianchi et al.(2006) Hamemesh & Lee(2003)	여성은 자녀를 돌보고,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남성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의식은 여성의 시간부족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 성별에 따른 시간압박감의 차이는 가정 및 직장생활에 대한 책임의식에 의한 것임.	

젠더론적 관점을 입증해주었다. 이러한 시간압박감에 대한 젠더론적 관점은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Hamermesh & Lee(2003)는 남녀가 시간부족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동시간의 양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남녀의 책임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사용한 시간의 양과 같은 객관적 측면에서 시간부족감을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간부족감은 개인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속성이 강한 개념이므로 시간부족감에 관해 고찰할 때에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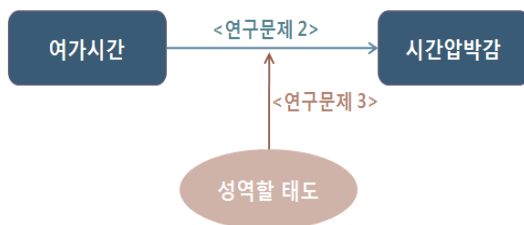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성별 및 성역할 태도에 따라 여가시간사용과 시간압박감의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성역할 태도에 따라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성역할 태도에 따른 시간압박감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진 미취학 자녀가 있는 20세 이상 취업남녀의 2일간 시간일지(N=3,150)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 종속변수

시간압박감은 생활시간자료에서 4점 척도로 측정된 단일문항에 근거하여, 4단계 수준(“항상 바쁨”, “가끔 바쁨”, “거의 바쁘지 않음”, “전혀 바쁘지 않음”)으로 측정하였다.

###### (2) 설명변수

여가시간은 2009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참고하여,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관련 행동에 사용한 시간을 합산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황은, 2004)를 참고하여 성역할 태도를 ‘남자와 여자의 일을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로 구분하는 성별 역할의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정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분석자료에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의견을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임”, “반대하는 편임”, “매우 반대”의 4단계 수준으로 측정된 문항을 2단계 수준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매우 찬성”과 “찬성하는 편임”의 경우 보수적인 수준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였으며, “반대하는 편임”과 “매우 반대”의 경우 진보적인 수

(표 2)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	시간압박감	4단계 수준(항상 바쁨, 가끔 바쁨, 거의 바쁘지 않음, 전혀 바쁘지 않음)
설명변수	여가시간	교제활동+일반인의 학습+미디어 이용+종교활동+관람 및 문 행사 참여+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교제 및 요가활동관련 물품구입+기타 여가관련 행동시간
	성역할 태도	2단계 수준(보수적, 진보적)
통제변수	연령	20대(20~29세), 30대(30~39세), 40대(40~49세), 50대(50~59세)
	학력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하, 4년제대학 재학 이상
	월평균개인소득	거의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직장 지위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유급노동시간	주당 유급노동시간(주업+부업)
	가사노동시간	음식준비 및 정리+의류관리+청소 및 정리+집관리+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가정경영+기타 가사일관련 행동시간
	자녀돌봄시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관련 행동시간

준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유의성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된 요인들을 중에서 분석자료에 포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변수의 측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 2>에 제시하였다.

3) 분석 방법

먼저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성역할 태도의 수준 및 성별에 따른 집단별로 여가시간사용과 시간압박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압박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여가시간과 성역할 태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남녀 각각 순서형 로짓 (Ordinal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는 여가시간\*성역할 태도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포함시켜 상호작용항의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남성 2,228 case, 여성 922 case로 총 3,150 case를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남녀의 활동 영역별로 생활시간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일일 여가시간은 평균 약 233분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여성의 일일 여가시간은 약 154분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이 약 3214분, 여성은 2501분인 것으로 나타나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이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여가시간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의 사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일평균 약 149분을 가사노동시간으로 사용하고 약 126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데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약 26분, 자녀돌봄시간은 약 44분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모두 취업상태임에도 불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남성(N=2,228)	여성(N=922)	계(N=3,150)
일일 여가시간 (단위: 분)		232.95 (146.55)	154.38 (108.86)	209.96 (141.19)
주당 유급노동시간 (단위: 분)		3214.09 (891.14)	2501.00 (1082.65)	3005.37 (1004.86)
일일 가사노동시간 (단위: 분)		26.43 (47.27)	149.49 (93.93)	62.45 (85.42)
일일 자녀돌봄시간 (단위: 분)		44.46 (61.34)	125.90 (96.85)	68.30 (82.33)
시간압박감	전혀 바쁘지 않음	18 (8%)	8 (0.9%)	26 (0.8%)
	거의 바쁘지 않음	210 (9.4%)	50 (5.4%)	260 (8.3%)
	가끔 바쁨	1,012 (45.4%)	378 (41.0%)	1,390 (44.1%)
	항상 바쁨	988 (44.3%)	486 (52.7%)	1,474 (46.8%)
	계	2, 228 (100%)	922 (100%)	3,150 (100%)
성역할태도	보수적	1,152 (51.7%)	184 (20.0%)	1,336 (42.4%)
	진보적	1,076 (48.3%)	783 (80.0%)	1,814 (57.6%)
	계	2,228 (100%)	922 (100%)	3,150 (100%)
연령	20대	188 (8.4%)	120 (13.0%)	308 (9.8%)
	30대	1,578 (70.8%)	694 (75.3%)	2,272 (72.1%)
	40대	438 (19.7%)	106 (11.5%)	544 (17.3%)
	50대	24 (1.1%)	2 (0.2%)	26 (0.8%)
	계	2,228 (100%)	922 (100%)	3,150 (100%)
학력	중졸 이하	44 (2.0%)	16 (1.7%)	60 (1.9%)
	고졸 이하	770 (34.6%)	362 (39.3%)	1,132 (35.9%)
	전문대졸 이하	568 (25.5%)	246 (26.7%)	814 (25.8%)
	4년제 대학재학이상	846 (38.0%)	298 (32.3%)	1,144 (36.3%)
	계	2,228 (100%)	922 (100%)	3,150 (100%)
월평균소득	거의 없음	2 (0.1%)	92 (10.0%)	94 (3.0%)
	100만원 미만	102 (4.6%)	292 (31.7%)	394 (12.5%)
	100~200만원 미만	738 (33.1%)	328 (35.6%)	1,066 (33.8%)
	200~300만원 미만	810 (36.4%)	136 (14.8%)	946 (30.0%)
	300~400만원 미만	378 (17.0%)	58 (6.3%)	436 (13.8%)
	400만원 이상	198 (8.9%)	16 (1.7%)	214 (6.8%)
	계	2,228 (100%)	922 (100%)	3,150 (100%)
직장 지위	전일제근로자	1,638 (73.5%)	548 (59.4%)	2,186 (69.4%)
	시간제근로자	78 (3.5%)	166 (18.0%)	244 (7.7%)
	고용주	194 (8.7%)	32 (3.5%)	226 (7.2%)
	자영자	314 (14.1%)	84 (9.1%)	398 (12.6%)
	무급가족종사자	4 (0.2%)	92 (10.0%)	96 (3.0%)
	계	2,228 (100%)	922 (100%)	3,150 (100%)

구하고 가정일은 거의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의 45.4%가 가끔, 44.3%가 항상 시간압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41%가 가끔, 52.7%가 항상 시간압박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남녀 모두 상당한 시간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의 시간압박감 수준이 좀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은 48.3%만이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데 비해 여성의 80%가 전통적 성역할에 반대하고 진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성역할 태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진보적 남성/보수적 여성/진보적 여성) 여가시간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태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평균 여가시간은 보수적 남성(약 236분)과 진보적 남성(약 230분)은 전체 평균(약 210분)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보수적 여성(약 165분)과 진보적 여성(약 152분)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여가시간사용에 성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연구결과

##### 1. 성별 및 성역할 태도에 따른 여가시간사용과 시간압박감의 수준

###### 1) 성역할 태도 및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 성역할 태도 및 성별에 따른 집단간(보수적 남

###### 2) 성역할 태도 및 성별에 따른 시간압박감

성역할 태도 및 성별에 따른 집단별로 시간압박감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혀 바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과 거의 바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조사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두 집단을 합하여

<표 4> 성역할 태도 및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

변수	남성 (N=2,228)			여성 (N=922)			전체 (N=3,150)	X <sup>2</sup> / F	
	보수적 (N=1,152)	진보적 (N=1,076)	계 (N=2,228)	보수적 (N=184)	진보적 (N=738)	계 (N=922)			
여가시간	평균 (표준편차)	235.72 (144.72) <sup>a</sup>	229.99 (148.51) <sup>a</sup>	232.95 (146.55)	165.49 (122.39) <sup>b</sup>	151.61 (105.12) <sup>b</sup>	154.38 (108.86)	209.96 (141.19)	72.757 ***
시간압박감	전혀/거의 바쁘지 않음	124 (43.4%) (10.8%)	104 (36.4%) (9.7%)	228 (17.4%)	20 (7.0%) (10.9%)	38 (13.3%) (5.1%)	58 (0.9%)	286 (9.1%)	46.892 ***
	가끔 바쁨	532 (38.3%) (46.2%)	480 (34.5%) (44.6%)	1,012 (45.4%)	94 (6.8%) (51.5%)	284 (20.4%) (38.5%)	378 (41.0%)	1390 (44.1%)	
	항상 바쁨	496 (33.6%) (43.1%)	492 (33.4%) (45.7%)	988 (44.3%)	70 (4.7%) (38.0%)	416 (28.2%) (56.4%)	486 (52.7%)	1474 (46.8%)	

\*\*\* p<.001

a, b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001의 유의수준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보수적인 남성은 가끔 비쁨을 느끼는 경우(46.2%)가 가장 많고, 항상 비쁨(43.1%), 전혀 혹은 거의 바쁘지 않음(10.8%)의 순으로 나타나, 약 89.3% 정도가 시간압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보적인 남성은 항상 비쁨(45.7%)의 경우가 가장 많고, 가끔 비쁨(44.6%), 전혀 혹은 거의 바쁘지 않음(9.7%)의 순으로 나타나, 약 90.3% 정도가 시간압박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보수적인 여성은 가끔 비쁨을 느낀다고 경우(51.5%)가 가장 많고, 항상 비쁨(38.0%), 전혀 혹은 거의 바쁘지 않음(10.9%)의 순으로 나타나, 약 89.5% 정도가 시간압박감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보적인 여성의 경우는 항상 비쁨(56.4%)의 경우가 가장 많고, 가끔 비쁨(38.5%), 전혀 혹은 거의 바쁘지 않음(5.1%)의 순으로 나타나, 94.9% 정도가 시간압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진보적 여성(94.9%), 진보적 남성(90.3%), 보수적 여성(89.5%), 보수적 남성(89.3%)의 순으로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보다는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의 시간압박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남성이 여성보다 시간압박감을 더 느낀다는 차승은(2010)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 2.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남성과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순서화 로짓(Ordinal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은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의 Model I 참조). 또한, 여성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경우에 비해 보수적일 경우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의 시간압박감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성은 여가시간 사용 등의 시간배분 방식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반면, 여성은 성역할 태도 수준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의 시간압박감은 가용시간론적 측면의 해석이 적용되고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젠더론적 측면의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3.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남녀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가시간\*성역할인식(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남성과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순서화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의 Model II 참조). 분석 결과, 여성은 성역할 태도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만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10$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성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에 비해 보수적인 집단일 경우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B = -0.001$ ) 반면, 여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여가시간의 증가가 시간압박감의 해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성별에 따른 시간압박감의 영향요인

성별에 따라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표 5〉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남성				여성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B (SE)	Wald	B (SE)	Wald	B (SE)	Wald	B (SE)	Wald
여가시간		-0.002 *** (0.000)	27.481	-0.001 * (0.000)	6.158	-0.001 (0.001)	1.638	0.000 (0.001)	0.091
성역할태도(보수적) (ref : 진보적)		-0.056 (0.084)	0.441	0.190 (0.158)	1.443	-0.462 ** (0.173)	7.151	-0.102 (0.288)	0.125
여가시간*성역할 태도				-0.001 + 1) (0.001)	3.384			-0.002 (0.001)	2.410
유급노동시간		0.033 *** (0.003)	115.848	0.033 *** (0.003)	114.375	0.017 *** (0.005)	13.327	0.017 *** (0.005)	13.583
가사노동시간		0.000 (0.001)	0.000	0.000 (0.001)	0.003	-0.002 ** (0.001)	9.455	-0.002 ** (0.001)	9.810
자녀돌봄시간		0.001 (0.001)	0.774	0.001 (0.001)	0.871	0.000 (0.001)	0.112	0.000 (0.001)	0.157
연령 (ref : 30대)	20대	0.337 * (0.158)	4.564	0.349 * (0.158)	4.893	-0.418 * (0.202)	4.274	-0.427 * (0.202)	4.454
	40대	0.052 (0.109)	0.228	0.045 (0.109)	0.173	0.045 (0.229)	0.038	0.058 (0.229)	0.064
	50대	-0.500 (0.405)	1.525	-0.530 (0.405)	1.716	-3.068 * (1.372)	4.999	-2.962 * (1.375)	4.640
학력 (ref : 4년제대 제학 이상)	중졸이하	-0.119 (0.316)	0.141	-0.094 (0.316)	0.088	-2.671 *** (0.530)	25.345	-2.626 *** (0.533)	24.282
	고졸이하	-0.489 *** (0.107)	21.026	-0.486 *** (0.107)	20.664	-0.651 *** (0.186)	12.264	-0.666 *** (0.186)	12.856
	전문대졸 이하	-0.312 ** (0.111)	7.928	-0.310 ** (0.111)	7.818	-0.202 (0.190)	1.123	-0.195 (0.190)	1.049
월평균 소득 (ref : 거의 없음)	100만원 미만	21.359 *** (1.389)	236.432	21.419 *** (1.390)	237.398	0.775 (0.833)	0.864	0.799 (0.830)	0.926
	100~200 만원 미만	21.850 *** (1.374)	252.744	21.916 *** (1.375)	253.881	1.029 (0.839)	1.503	1.043 (0.835)	1.559
	200~300 만원 미만	21.708 *** (1.374)	249.620	21.776 *** (1.375)	250.803	0.721 (0.853)	0.713	0.729 (0.849)	0.736
	300~400 만원 미만	21.818 *** (1.376)	251.236	21.888 *** (1.378)	252.466	1.515 + (0.896)	2.858	1.541 + (0.892)	2.985
	400만원 이상	22.138 *** (1.381)	256.816	22.191 *** (1.383)	257.630	0.746 (0.986)	0.572	0.835 (0.990)	0.712
직장 지위 (ref : 전일제근 로자)	시간제 근로자	0.017 (0.235)	0.005	0.006 (0.235)	0.001	-0.156 (0.224)	0.483	-0.151 (0.224)	0.457
	고용주	-0.279 + (0.152)	3.367	-0.274 + (0.152)	3.263	0.928 * (0.452)	4.210	0.914 * (0.451)	4.120
	자영자	-0.056 (0.125)	0.198	-0.056 (0.125)	0.199	0.838 ** (0.276)	9.197	0.807 ** (0.277)	8.527
	무급가족종 사자	20.185 (0.000)		20.270 (0.000)		0.912 (0.842)	1.175	0.934 (0.837)	1.244
$\chi^2$		219.885 ***		223.253 ***		150.175 ***		152.614 ***	
Pseudo- $R^2$		0.094		0.095		0.150		0.153	
N		2,228				922			

\*\*\* p<.001, \*\* p<.01, \* p<.05 + p<.10

Pseudo- $R^2$ 는 Cox와 Snell의 값을 사용하였다.

1) p = .066

인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녀간의 공통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시간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돌봄시간은 남녀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학력이 높을 수록 시간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노동시간, 연령, 소득, 직장에서의 지위에 따른 영향은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다.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여성이 시간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증가하는 데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압박감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대에 가장 시간압박감을 느끼다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압박감이 해소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은 20대에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다가 30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40대에 최고조에 이르고 5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차승은(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도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대체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압박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여성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시간압박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고용주일 경우 시간압박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고용주와 자영자는 다른 지위의 여성에 비해 시간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서 젠더차이를 강조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용시간론적 관점과 젠더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성별 및 성역할 태도에 따른 여가시간사용 및 시간압박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시간 사용은 성역할 태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 여가시간이 여성의 평균 여가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가시간 사용에 성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가 모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가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보다는 진보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시간압박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집단이 일어나 가장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자신의 역할을 수용하는 데 비해,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집단은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남녀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역할 수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이 가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성역할에 대해 같은 태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여성의 시간압박감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남성은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경우에 비해 보수적일 경우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의 시간압박감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성의 시간압박감은 시간

배분방식의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성역할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시간압박감은 가용시간론적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젠더론적 측면의 해석이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성은 성역할 태도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만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에 비해 보수적인 집단일 경우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 $B=0.001$ ) 데 비해, 여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여가시간의 증가가 시간압박감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압박감의 영향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서 젠더차이를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간압박감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과정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가 24시간이라는 같은 시간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정도와 시간압박감을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인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의 시간압박감은 직업관련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 등 제도적인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유급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시간이나 연령,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가계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개인적 차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남녀 모두가 취업상태이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남성의 시간압박감은 직업 역할에 치중되어 있는 데 비해, 여성은 직장생활

에서의 역할과 가정생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여성은 양쪽 영역에서 시간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기혼취업여성들이 경험하는 시간압박감은 이들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고(김혜선, 1982)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야기시켜(Pina & Bengtson, 1995) 가정 내 역할 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여성의 삶의 질이나 심리적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일-가족 양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성은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성역할 태도에 따른 시간압박감의 차이가 없는 데 반해, 여성은 여가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시간압박감이 감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경우 시간압박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로 인해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압박감의 해소가 촉진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없었다. 즉, 남성은 여가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시간압박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데 반해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성역할 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가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성역할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부담감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실제 성역할 태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인식하는 시간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일과 가정의 두 영역에서 모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도 가정의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비해, 남성은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도와주는 형식의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하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의 여가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여가활동보다는 대부분 자녀를 위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여가시간이 휴식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자녀양육 시간의 연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여성의 대다수(조사대상의 80%)가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해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시간사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가의 질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취업남녀를 대상으로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를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기초 연구로, 상대적으로 낮은 유의수준( $p=.066$ )에서 모형이 검증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데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역할 태도에 따른 효과는 연령이나 세대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는 여가시간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가시간 사용이 단절됨 없이 연

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몰입했는지 등의 여가시간 사용의 내용적 측면은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 이외에도 유급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가사노동시간 등 성역할 태도에 따라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영역으로 확장하여 이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도 유용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은지·김수정(2009). 성별 가사노동시간 측정 : 시간일지와 서베이문항 방식 비교. 조사연구, 10(2), 1-21.
- 2) 김혜선(1982).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3) 박영미·김기옥(1994). 주부의 시간압박감에 따른 소비자행동-시간절약형내구재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29-238.
- 4) 서미경(1996). 주부의 Life-Style과 시간제약지각 및 시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5(1), 15-31.
- 5) 손문금(2004).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인식, 여성연구, 67, 159-198.
- 6) 유성용(2008). 가구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간-1999/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1-165.
- 7) 유소이·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1-86.
- 8) 이승미·이기영(1990).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29-142.

- 9) 장윤옥(1991).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과 가사노동수행방안-가정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 19, 273-312.
- 10) 장윤옥(1992).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이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0(3), 325-345.
- 11) 장윤옥(199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이 시간제약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65-180.
- 12) 장윤옥(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75-186.
- 13)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 취업한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116.
- 14)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15) 차승은(2011a).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 : 1999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자료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131-151.
- 16) 차승은(2011b).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과 여가제약. 건강선택행동의 선택과정 혹은 희생? 한국인구학, 34(2), 65-90.
- 17) 최혜지(2007). 기혼취업여성의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인지된 시간부족위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31-438.
- 18) 한신갑·박근영(2007). 구별짓기의 한국적 문법: 여가활동을 통해 본 2005년 한국사회의 문화지형. 한국사회학, 42(1), 211-239.
- 19) 황은(2004).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77-89.
- 20) Becker, G.(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of LXXV (September). 493-517.
- 21) Bianchi, S., Robinson J. P. & M. A. Milkie(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york: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22) Daly, K. J.(1996). Families and time: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California: Sage.
- 23) Ferree, M. M.(1990). Beyond separate sphere: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66-884.
- 24) Hamermesh, D. & Lee, J.(2003). Stressed Out on Four Continents: Time Crunch or Yuppie Kvetc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10186.
- 25) Hill, M.(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27-452.
- 26) Hochschild A. R.(1989). Second shift. New York: Penguin.
- 27) Mattingly, M. J. & L. C. Sayer(2006).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5-221.
- 28) Pina, D. L. & Bengtson V.(1995).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the well-being of retirement-aged wives. The Gerontologist, 35(3), 308-318.
- 29) Robinson, J. P. (1990). The time squeeze, American Demographics, 12, 30-33.
- 30) Robinson & Godbey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31) Schneider, B. and L. Wait(2005). Timely and timelessness: work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Bianchi, S.M. Casper, L.M. &



King, R.B. (eds).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pp. 67-79).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32) Thomson, L. and A. J. Walker(1989) Gender

- 투 고 일 : 2012년 9월 29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22일